

‘대권野心’ 호남 인물은 누구?

현실성 낮지만 “호남 정치 활로 모색”

박지원·박준영·전정배 도전여부 관심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정치권이 대선 모드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대선 도전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출신 정치인들이 대권을 거머쥘 현실성은 낮지만 호남의 정치적 활로 모색이라는 명분 아래, 야권의 대선 레이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이 끝나고 대선 정국이 조기 도래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인들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국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갈수록 왜소해지는 호남 정치권의 현실이 오히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과감한 도전을 이끄는 명분과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인들 가운데 대선 도전에 나선 인사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 정치권의 위상 약화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야권의 대선 주자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3선 지사로서 도정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대선 도전 등 정

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박 지사 핵심 측근은 “일단 정국 상황을 보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하지만 무리하게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변에서는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대선 도전이 현실화된다면 박준영 지사도 대선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미 한 차례 대선 도전에 나섰던 강은태 광주시장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 시장이 과학벨트 유치 등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 당 지도부와 맞서는 등 강단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정국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시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실패할 정치적 도전에 나섰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박 전남지사는 3선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지만 강 시장은 재선을 염두에 뒀다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며 “현실을 감안한다면 강 시장이 대선 도전보다는 시정에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의원

박준영 지사

전정배 의원

고 말했다.

그동안 대권에 욕심이 없었던 박지원 의원도 최근 총선 패배와 관련,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한 뒤 “상대 세력에 대한 배려와 인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필요하다면 내가 대통령선거에 나설 것이다”고 말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 구성 등 당내 역학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며 실제로 대선 도전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오히려 박 최고위원이 당권 장악 등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강-베이커

역할에 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을 두 번이나 지낸 박주선 의원도 야권의 대선 레이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의 투신자살 사태라는 정치적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안 출신의 전정배 의원도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정치적 활로 모색을 위해 대선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지도부 누가 도전할까

이낙연·박지원 등 출마 고민

민주통합당이 한명숙 대표의 사퇴로 2개월 이내에 새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누가 임시정당대회 지도부 경선에 참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출마대상자로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3선 이상 국회의원이 된 8명을 우선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들 중 4선인 이낙연 의원, 3선인 박지원, 박주선 의원 등이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정당대회에 출마를 했거나 잠시나마 출마를 준비한 바 있어 주변에서 출마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친노(친노무현) 위주로 구성된 현 지도부체제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전 대 출마가 가장 유력시되고 있으며 박주선 의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겪은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더 큰 도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 의원은 2년 후 있을 전남도지사 선거와 이번 지도부 경선에 갖는

정치적 상관관계를 분석,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진의원으로서 정치적 보폭을 넓혀야 할 3선의 강기정·김동철·우은근·주승용 의원도 경선 출마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모두는 정당대회 전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 참여 여부를 동시에 놓고 정치적 선택해야 한다.

또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김효석·전정배 의원과 재기에 성공한 신계륜 전 의원 등 수도권에 출마한 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남과 경기도에 있던 자신이 지역 구를 버리고 정치적 비상을 위해 서울 출마를 결행했지만 패배한 김 의원과 천 의원은 재기의 발판이 필요한 상황. 따라서 임시정당대회는 이들에게 정치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486 운동권의 ‘말형’격으로 이번엔 3선 반열에 오른 신계륜 전 의원도 정치적 비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불 밝힌 여수엑스포 랜드마크 ‘디오’



사진=ECA2, 조직원 공동 제공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여수엑스포의 랜드마크인 ‘디오(The O)’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디오는 여수엑스포 바다문화공간인 빅오(Big-O) 위 47

m 크기의 워터스크린으로, 지난 14일 밤 시연을 통해 여수 밤바다를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물들였다. 디오는 박람회 기간동안 폭 120

m의 부유체에 놓여진 400여개의 분수와 어우러져 박람회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빅오쇼를 연출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임택기자 mtlim@

득표율 1%에 웃고 울고

광주·전남 총선 출마자 40% 31명

선거비용·기탁금 한 푼도 못 건져

4·11 총선에 출마한 광주·전남지역 출마자 중 40%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1 총선에 출마한 광주·전남지역 후보자 81명(광주 33·전남 48) 가운데 유효투표수의 10% 미만을 얻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후보들이 31명(39.5%)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득표율 10~15% 미만을 얻어 선거비용과 기탁금 중 50%를 보전받는 후보는 7명으로 집계됐다.

순천과 무안 등 시·군 단체장 보궐 선거 3곳에 출마한 11명의 후보 중 9

명은 전액 보전을 받는 반면 2명은 선거비용 등을 날리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 유효 득표율 15% 이상을 획득, 선거비용을 돌려받게 된 후보는 42명으로 절반(51.8%)을 약간 웃돌았다.

공직선거법에는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의 득표율은 절반을 보전받는다.

선거비용은 지자체와 읍면동 수, 사람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광주·전남 19개 선거구는 최대 2억6000만원(순천)에서 최소 1억6600만원(동구) 정도로 2억원 안팎이다.

순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이은 후보는 15.28%를 득표, 간판의 차로 전액 보전받게 됐다. 광주 동구 통합진보당 김관희 후보

와 남구 강도석(무소속) 후보도 각각 10.34%와 10.48%의 득표율로, 간신히 절반을 챙겼다. 김관희 후보의 경우 167표 차이로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됐다.

반면에 담양·장성·함평·영광 선거구 새누리당 이상선 후보는 9.77%로 10% 기준에 85표가 부족해 아깝게 보전 기준에 미달했다. 고흥·보성 선거구 무소속 김철근 후보는 9.55%를 득표, 2억여원의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김 후보는 280표만 더 얻으면 득표율 10%를 채울 수 있었다.

이 제도는 후보 난립을 막고 선거 공영제를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보전 기준 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와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단체장 선거의 보전 기준 비율이 같아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소리가 더 가관

세계4대 미항여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5. 12 ~ 8. 12

주 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The Living Ocean and Coast)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신항 일원

참가규모 106개국, 10개 국제기구

청결·질서·친절·봉사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은 박람회 성공의 열쇠!